

# 병원건축, 환자 치유하는 돌봄의 공간

## 자연과 공동의 공간 통한 전인적 접근 필요

시대마다 질병 개념 따라 병원 건축 달라져

환자에게 긍정적 감각자극 제공 디자인 도입해야

병원 로비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풍요 제공

“병원건축은 항상 의학과 동 반해 발전해왔습니다. 현대에는 기능 효율성에서 치유와 돌봄 중 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내원 한양대 ERICA캠퍼스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학술회에서 ‘돌봄의 공간-건축과 병원의 만남’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내원 교수는 “시대마다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병원건축의 개념이 달라졌다”면서 “병원건물 자체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질병이 몸뿐 아니라 마음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환경 및 외부의 문제를 중요시했다. 신전이 병원이었으며 치유의 터널, 공연장 등이 있었다.

중세시대에는 질병의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으며, 심자가와 초록식물의 치유효과를 건축물에 도입했다. 중세의 수녀 힐데가르트(클로이스터)에 있는 초록식물이 환자 회복에 도

움을 된다고 주장했다.

18세기에는 질병의 원인을 병원균이라고 생각해 파발리온식 병원을 지었으며,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설계했다. 1920년대에는 햇빛이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테라스형 병원이 출현했다. 20세기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 이중 복도형과 같은 콤팩트한 수직형 병원을 지었으나, 자연적 가치는 잃은 기능적인 건축이라는 비판이 생겼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병원건축은 질병 치료의 중요한 수단이자 질병 회복의 직접적인 도구로 디자인되었다. 병실에서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 병의 경과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1984년 미국의 Ulrich는 ‘병실에서의 그린(Green)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정원이 보이는 병실과 벽돌 벽이 보이는 병실 환자의 수술 후 상태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정원이 보이는 병실 환자의 재원기간이 짧고 수술

후 합병증이 적었으며 진통제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내원 교수는 “오늘날에는 질병이 외부가 아닌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대로 육체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을 종합한 전인적인(Holistic) 치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자연, 인간, 예술, 공간 등을 통한 온전성을 고려한 돌봄의 건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와 돌봄의 개념을 잊고 병원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긍정적인 감각을 제공하는 감각자극디자인을 통해 병원건축의 치유와 돌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원 환경에 나무 등 자연과 공동의 공간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햇빛, 자연, 조망 등 좋은 에너지를 병원 환경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실제 연구에서도 나무가 가득한 치매병원과 벽만 존재하는 치매병원을 비교한 결과 나무가 많은 치매병원 노인들의 활동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의 군집본능에 따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용공간을 만들으로써 사회적 치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병원 로비는 단순한 통로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풍요를 제공하는 돌봄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 부울경 정신간호사회 회원 해외연수

부산·울산·경남정신간호사회(회장 김영선)는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를 타이완에서 1월 28~31일 실시했다. 정신간호사 20여명이 참여했다.



타이베이 시립정신병원에서 병원기반 정신재활치료의 연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입소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둘러봤다.

타이완정신간호사회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이완의 정신보건 현황과 타이완정신간호사회 활동사항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과 정신간호사회 활동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숙련가를 넘어 전문가 돼라

## 일하는 방법 혁신하며 자신의 가치 높여야

“숙련가(Manual Worker)를 넘어 전문가(Knowledge Worker)가 돼야 한다.”

병원간호사회가 개최한 ‘신규간호사를 위한 간호문화 세미나’에서 강연한 박영근 아담재 대표가 신규간호사들을 위해 조언했다.

박영근 대표는 “선배간호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며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숙련가를 넘어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긍심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첫째, 숙련가(Manual Worker)를 넘어 전문가(Knowledge Worker)가 돼야 한다.

숙련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전문가는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개발·혁신해서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을 말한다.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만의 노하우를 쌓아보면 자부심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갖춰진다.

둘째, 돈이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외적 보상)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내적 보상)을 목표로 하라.

외적 보상의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보다 더 나은 보상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 내적 보상을 목표로 하면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박영근 대표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면서 “신규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아보여도 조금씩 늘려나 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충남대병원 박묘운 간호사팀 논문 SCIE 저널 게재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묘운 간호사팀과 충남대 간호대학 송영신 교수가 진행한 임상간호연구 논문이 SCIE 저널에 게재됐다.

논문 ‘Effect of 24-Hour Bed Rest versus Early Ambulation on Headache after Spinal Anesthesia :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가 ‘Pain Management Nursing’ 2017년 10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통증 예방을 위한 연구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등 국내외 10개 데이터베이스에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출판된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했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비평가적 질 평가를 통해 최종 8개의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24시간 침상안정을 취한 그룹과 조기이상을 실시한 그룹 간에 마취 후 두통 발생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후 두통 예방을 위한 침상안정 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Medline, CINAHL, KISS, RISS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총회 일정

대한간호협회 전국 지부(시도간호사회)의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를 받으며,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확정한다.

지 부	일 시	장 소
서울	3월 13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 사이버호텔
부산	3월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호텔
대구	3월 29일 오전 11시	호텔라온제나
인천	3월 9일 오후 2시	센트럴파크 송도호텔
광주	3월 23일 오후 3시	광주 롯데메이퀀호텔 3층 다이내스티움
대전	3월 2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 스타볼룸
울산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MBC컨벤션 안철로홀
경기	3월 6일 오후 1시	이비스 엠베서더호텔 수원
강원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춘천베어호텔 2층 소양홀
충북	3월 20일 오후 2시	청주 스펙트리아컨벤션센터
충남	3월 22일 오전 11시	천안 세종웨딩홀 6층 컨퍼런스홀
전북	3월 14일 오후 4시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
전남	3월 14일 오전 10시	목포 신안비치호텔
경북	3월 29일 오후 3시	호텔인터뷰더그랜드주 플러스홀
경남	3월 21일 오후 1시	풀만 엠베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제주	3월 31일 오후 3시	제주 오리엔탈호텔
군진	4월 6일 오전 10시	국군간호사관학교 내이팅게일홀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불타는 버스에서 운전기사 구한 김혜민 간호사 국무총리 표창

불이 붙은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기사를 구해 화제를 모았던 김혜민 간호사가 ‘2017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2018년 1월 31일 수상했다.

국민추천포상 제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포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전기사를 무사히 구출했다.

불이 붙은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구출한 김혜민 간호사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됐고 언론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됐으며, 시민 영웅의 용감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줬다.

김혜민 간호사는 2016년 5월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로 불이 붙은 버스에서 행운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운전기사를 구하기 위해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쳤다.

당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김혜민 간호사는 수건을 적서 호흡을 유지하게 하는 등 신속하고 차분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다. 이어 도착한 견인차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운

이 같은 공로로 김혜민 간호사는 2016년 7월 국민안전처가 수여하는 ‘참 안전인상’을 받았으며, 넥센타이어와 넥센히어로즈가 펼치는 ‘이달의 히어로’ 캠페인 시구자로 선정돼 시구했고, 넥센타이어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김혜민 간호사는 현재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전국 건보공단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전국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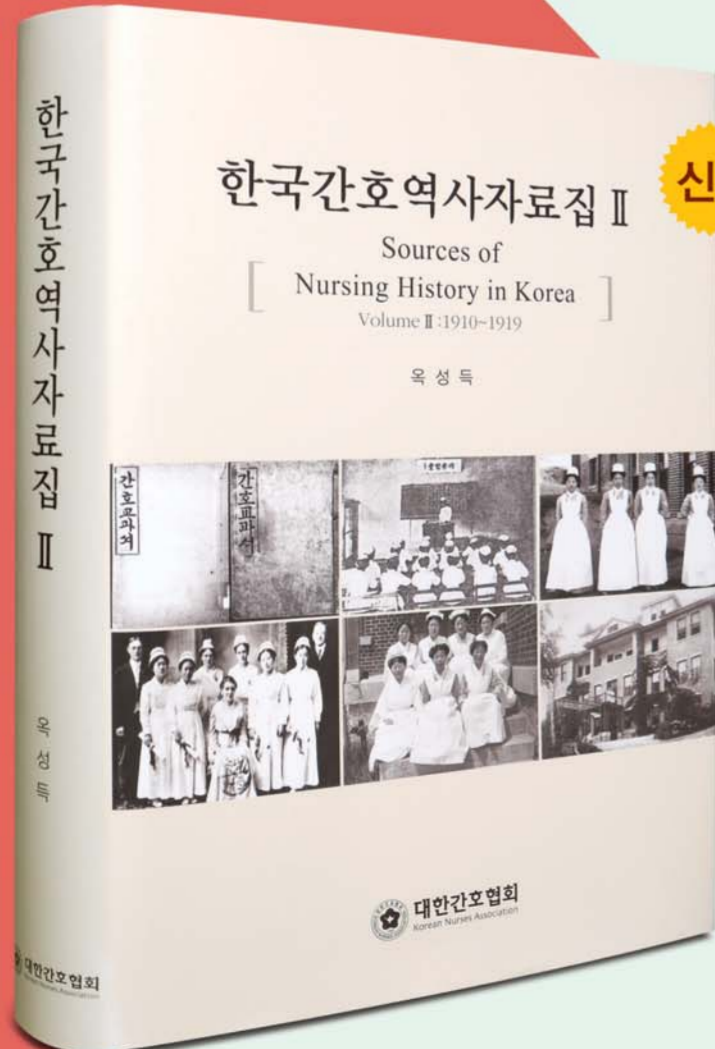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주혜진 기자 hjoo@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배치해 2월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정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국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 및 결정준중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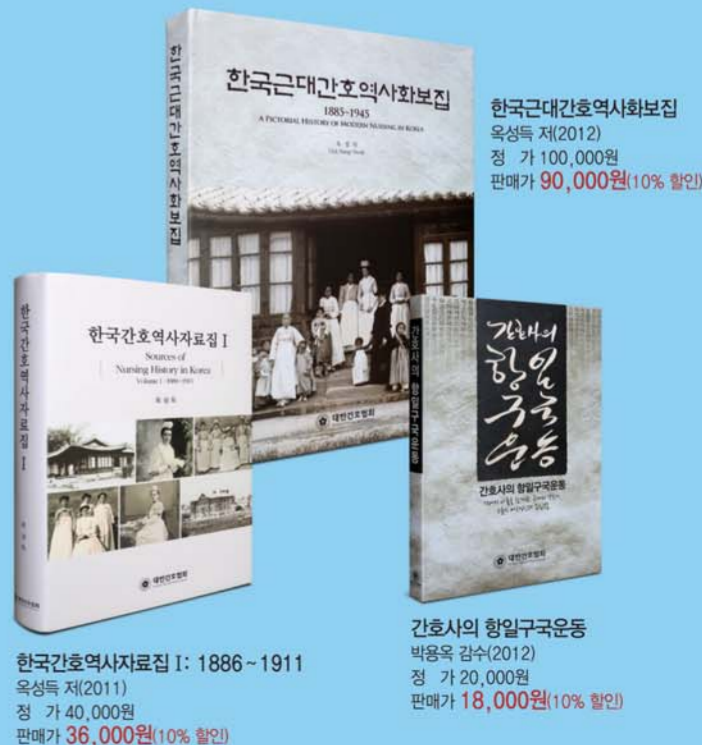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첫 10년인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간호 발자취를 집대성. 2011년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1886~1911』에 이어 옥성득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 교수가 집필을 맡아 6년 동안 자료 수집과 해석 일제강점기 간호와 간호교육의 발전, 그리고 간호사의 활약상에 대한 생생한 기록 수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옥성득 저. 2017. 정가 40,000원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www.rnbook.or.kr

#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I: 1910~1919』 발간 기념 간호역사서 할인 판매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1886~1911  
옥성득 저(2011)  
정가 40,000원  
판매가 36,000원(10% 할인)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  
박용옥 감수(2012)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10% 할인)

구입문의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02-2260-2553